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

그날 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펼쳐졌던 꿈 이야기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 (4화)

- 지난 이야기 -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지키던 ‘선의’를 통해서 ‘세속헌자’와 ‘율법 선생’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시작되는 곧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크리스천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작별인사를 나눈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연거푸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 남자가 나오며 무슨 일이시냐고 했습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길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주인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해석자를 보고 꾸벅 절을 한 크리스천은 간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 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선의라는 분이 길을 가르쳐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댁의 주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해석자는 머슴에게 앞장서서 불을 밝히게 하고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1. 거룩하신 분의 초상화

하인이 첫 번째 방문을 열어젖히자 한쪽 벽에 기쁨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분은 두 눈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의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짚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못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영적인 생명을 손수 돌보시는 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해석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죠?

이것은 어둠 속에 감춰 있던 것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쓴 모습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어떡하든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면 장차 이와 같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당신이 가려는 곳을 다스리시는 주인께서 유일하게 임명하신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이끌어주실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세요.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길로 인도해줄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2. 먼지가 가득한 응접실

그 다음에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응접실은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것이 집을 지은 뒤에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휩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습니

다. 머슴이 비질을 시작하자 응접실이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먼지만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는 주인의 말대로 물을 끼얹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먼지가 금방 사라져서 방 안이 뽀얗게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물었습니다.

“방금 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더러웠던 응접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더러운 죄의 상태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썩어 먼지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응접실의 먼지는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그 후에 쌓이게 된 내면의 타락을 말합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보셨죠?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 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슴이 했던 비질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더욱 크게 만듭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석자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셨죠? 이것은 복음이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은 깨끗케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

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정욕이’와 ‘인내’ 형제의 방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라는 아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정욕이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들 형제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정욕이는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는 정욕이를 달래주고, 인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정욕이는 당장 받고 싶

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인 것입니다.”

그때 웬 남자가 과자가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들어오더니 정욕이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쏟아놓았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보물처럼 집어 들고 환호하면서 썸통이라는 듯 동생 인내를 쳐다보며 킁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자들은 눈 깜짝할 새에 썩어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념마쫓가리뿐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풀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죠.”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합니다. 형인 정욕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동생 인내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이는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뤄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덤불

속의 새 두 마리보다 손에 쥔 죽은 새 한 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요.

하지만 정욕이는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텅마쫓가리만 붙들고 있게 됩니다. 정욕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정욕이의 동생인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이의 손에 누더기만 남은 순간에 동생은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해석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욕이가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인내가 받을 다음 세상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가 제 맘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한 걸 내세우며 동생인 인내를 비웃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이는 조롱을 받게 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 할까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인내가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요. 그 선물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인내 외에는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인내가 가진 것처럼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자는 내친김에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는 정욕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고,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할 때는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16:25)’**”